

‘우승’·‘최초’ 연이어...박항서, 베트남 축구 역사 바꿨다

박항서 축구 5년

‘박항서 매직’으로 불리며 5년간 베트남 축구 ‘업그레이드’ U-23 준우승·SEA게임 2연패·AG 4강·WC 최종예선 진출

고별 무대였던 2022 아세안축구연맹(AFF) 미쓰비시일렉트릭컵(미쓰비시컵)에서 우승을 놓치긴 했지만 ‘왈딩크’로 불린 박항서 감독은 지난 5년 동안 베트남 축구를 바꾼 영웅으로 평가받는다.

2002 한일월드컵에서 거스 히딩크(네덜란드) 감독을 보좌하며 4강 신화를 도운 박 감독은 이후 올림픽 대표팀과 프로축구 K리그 경남FC, 전남 드래곤즈, 상주 상무 등의 사령탑을 지내는 동안 큰 성과를 내진 못했다.

그러다 2017년 10월 베트남으로 건너간 박 감독은 축구 인생의 새 전환점을 맞았다. 박 감독은 베트남 축구 A대표팀과 23세 이하(U-23) 대표팀 지휘봉을 동시에 잡으며 전권을 부여받았다.

당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30위권에 있던 베트남 축구를 100위권 이내로 진입시켰다고 출사표를 던진 박 감독은 이듬해인 2018년 초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부터 돌풍을 일으키며 주목받았다.

박 감독의 지도로 베트남은 4강을 넘어 결승 무대까지 진출했다. 동남아시아 국가로는 최초였다.

결승에서 우즈베키스탄과 연장 접전 끝에 1-2로 패해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지만, 베트남 축구가 AFC 주관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건 이때가 처음이었다.

박항서 감독의 상승세는 베트남 U-23 대표팀이 참가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도 이어졌다.

16강 진출이 종전 최고 성적이었던 베트남

은 첫 8강을 넘어 4강까지 올라갔다. 16강에서 중동의 난적 바레인을 1-0으로 눌렀고, 8강에선 시리아를 1-0으로 제압했다.

박항서호의 진격은 4강에서 김학범 감독의 한국에 1-3으로 져 멈췄고, 아랍에미리트(UAE)와 3-4위 결정전에선 승부차기 끝에 패해 최종 4위로 대회를 마쳤다.

2018년 ‘박항서 매직’의 피날레는 AFF 스즈키컵(현 미쓰비시컵) 우승이었다.

이 대회에서 베트남은 3승1무로 조별리그를 통과한 뒤 토너먼트에서 필리핀, 말레이시아를 누르고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정상에 올랐다.

우승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했던 베트남 축구의 동남아시아 제패로 박 감독은 ‘국민 영웅’에 등극했다.

또 박 감독의 ‘베트남 활약상’은 국내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박항서 매직은 2019년에도 이어졌다. UAE에서 열린 아시안컵에 출전한 베트남은 조별리그에서 1승2패로 조 3위에 머물렀지만, 3위 팀 중 상위 4개 팀 안에 들며 16강에 올랐다.

그리고 16강에선 요르단을 승부차기 끝에 꺾고 8강에 진출했다.

8강에서 강호 일본을 만난 베트남은 또 한번 승부차기까지 가는 명승부를 연출했지만, 어렵게 4강엔 실패했다. 하지만 역대 최고 성적인 2007년 8강과 타이틀을 이루며 큰 박수를

받았다.

베트남 축구 영웅이 된 박 감독은 2020년 1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2019년 11월 베트남과 2+1 재계약을 체결했다.

또 당시 AFF 올해의 감독상을 받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다.

베트남과 계약을 연장한 박 감독은 2019년 동남아시아(SEA) 게임에서 베트남 축구에 첫 금메달을 안기며 새 역사를 추가했다.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에서도 베트남은 또 하나의 기록을 남겼다.

2차 예선에서 G조 2위를 기록한 베트남은 각 조 2위 중 상위 5개 팀 안에 들어 최종예선에 성공했다. 베트남 축구가 월드컵 최종예선에 오른 건 이때가 처음이었다.

아시아 강국들이 포진한 최종예선에선 B조 최하위에 그쳐 본선 티켓을 따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중국을 3-1로 꺾으며 최종예선 첫 승을 거뒀고, 일본과도 1-1로 비기는 등 베트남 축구의 저력을 과시했다.

월드컵 최종예선에선 아쉬움을 남겼지만, 동남아시아선 박항서호의 질주가 계속됐다.

지난해 5월 SEA 게임에서 2회 연속 정상을 차지했다. 태국과의 결승전에서 1-0 승리를 거두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코로나19 사태로 1년 연기돼 열린 대회에서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 동남아 강호 태국 등을 제압했다.

베트남에서 ‘우승’과 ‘최초’의 역사를 써온

**‘박항서 매직’
베트남 축구 주요 성과**

2017년 10월 베트남 A대표팀 23세 이하(U-23)대표팀 감독 공식 취임
2023년 1월31일 임기 만료

A대표팀 성과	
미쓰비시컵	2018년 우승(2008년 이후 10년 만), 2022년 준우승
AFC 아시안컵	2019년 8강 진출(2007년 이후 12년 만)
월드컵	2022년 사상 첫 최종예선 진출(본선 진출은 실패)
FIFA 랭킹	2018년 100위권 진입 후 현재까지 유지(2011년 이후 7년 만)

U-23 대표팀 성과	
AFC U-23 챔피언십	2018년 첫 준우승(동남아시아 국가 최초)
아시안게임	2018년 첫 8강, 4강 진출(최종 4위)
동남아시아(SEA)게임	2019년, 2021년 연속 우승(1959년 이후 60년 만)

*베트남예선 통일 베트남 축구의 역사로 인정하지 않음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2 아세안축구연맹(AFF) 미쓰비시일렉트릭컵(미쓰비시컵)에서 준우승으로 고별무대를 마쳤다. 마지막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지 못했지만, 박 감독은 취임 당시 약속했던 FIFA 랭킹 100위권 진입에 성공했고 베트남을 동남아시아 강국에 올려놓았다.

박 감독은 16일 막을 내린 미쓰비시컵에서 화려한 라스트댄스를 펼쳤으나, 태국에 막혀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비록 마지막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지 못했지만, 박 감독은 취임 당시 약속했던 FIFA 랭

킹 100위권 진입(지난해 12월 순위는 96위)에 성공했고 베트남을 동남아시아 강국에 올려놓았다.

뉴스



김시우가 15일(현지시간) 미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레이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 오픈 정상에 올라 트로피를 들고 ‘알로하’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시우는 최종 합계 18언더파 262타로 정상에 올라 결승 후 첫 승, PGA 통산 4승을 달성했다.

2년 ‘무관’ 김시우, 우승으로 부진 정면돌파

2012년 역대 최연소 PGA 투어 퀄리파잉스쿨 통과

김시우(28)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무대에서 감격적인 우승을 차지했다.

김시우는 16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레이 컨트리클럽(파70)에서 벌어진 PGA 투어 소니오픈(총상금 790만 달러)에서 최종합계 18언더파 262타를 기록, 헤이든 버틀러(미국)를 1타 차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2016년 8월 윈덤 챔피언십, 2017년 5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2021년 1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우승했던 김시우는 통산 네 번째 우승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2년 만에 우승이었고, 역전 우승이라서 더욱 극적이었다. 김시우는 2012년 천재 골퍼의 이름을 알린 바 있다. 그해 12월 역대 최연소(17세 5개월) PGA 투어 퀄리파잉스쿨을 통과했다. 하지만 18세가 되기 전 PGA 투어에 입회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투어에 입성하지 못했다.

김시우는 2013년 6월이 돼서야 PGA 정식 회원으로 입회했다.

그러나 2013년 8개 대회(초청대회 포함)에 출전해 7번이나 컷 탈락했고, 한 차례 기권의 고배를 마셨다. PGA 투어의 벽을 실감한 시즌이었다.

절치부심한 김시우는 2016년 1월 소니오픈에

서 4위에 오르며 진가를 보여줬고, 8월 윈덤 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당시 김시우는 최경주, 양용은, 배상문, 노승열에 이어 다섯 번째 한국인 우승자로 이름을 올렸다. 역대 한국인 우승자 중 최연소(21세) 신기록이었다.

김시우는 2017년 5월 제5의 메이저대회로 불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을 제패해 파란을 일으켰다. 승승장구 할 것만 같았던 김시우는 2016-2017시즌 우승 후 컷 탈락과 중하위권 성적을 반복하며 고개를 떨쳤다.

2018년 RBC 헤리티지에서 우승 문턱까지 갔지만 어렵게 준우승에 머물렀고, 2018-2019시즌 톱10에 5차례 오르며 선전했지만 우승권과는 거리가 멀었다. 2019-2020시즌에는 톱10에 한 번밖에 이름을 올리진 못했다.

심기일전한 김시우는 2021년 1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그해 8월 윈덤 챔피언십에서 공동 2위에 올랐다.

하지만 김시우는 2021-2022시즌 다시 한 번 부진을 겪었다. 김시우는 겨우내 샷을 가다듬었고, 결혼과 함께 안정을 찾으면서 이번 시즌 다시 한 번 ‘오독이’처럼 별책 일어났다.

김시우는 세계랭킹도 41위로 뛰어 올랐고, 마스터스 출전권도 확보했다.

여자프로배구 AI페퍼스, 훈련장·숙소 광주 이전 추진

현재 경기도 용인→광주 염주체육관으로 옮기기 위해 시와 협의 진행



여자프로배구 광주 AI페퍼스가 훈련장과 선수단 숙소를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7일 AI페퍼스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용인에 있는 선수단 훈련장을 광주 염주체육관 등으로 옮기기 위해 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선수단 숙소는 훈련장에서 가까운 염주체육관 인근 아파트가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장과 숙소 이전이 완료되면 AI페퍼스는 오는 5월부터 광주에서 2023-2024시즌 대비 훈련에 돌입할 계획이다.

훈련장 등이 광주로 완전 옮겨질 경우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AI페퍼스는 염주종합체육관의 페퍼스타디움을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훈련을 하기 위해 3-4시간 버스를 타고 용인까지 이동했다.

또 훈련장까지 옮겨지면 광주지역 배구 저변확대도 기대된다.

비시즌기간 지역민과 함께하는 팬 행사를 수시로 열수 있으며 배구를 하고 있는 중·고등학교를 찾아가 1일 코치 등의 행사도 진행할 수 있다.

정성우 AI페퍼스 사무국장은 “홈거기를 앞두고 용인에서 훈련을 한 뒤 광주로 장시간 이동해야하는 부담 때문에 경기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훈련장과 숙소까지 광주에 마련되면 선수들의 연구팀에 대한 소속감도 높아지고 배구 저변 확대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훈련장과 숙소가 광주에 마련 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올시즌(2022-2023)이 종료되면 협의를 본격화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AI페퍼스 선수단 규모는 코치진 포함 30여 명이며 선수지원단 4명이다.

지난 2021년 여자프로배구 7번째 구단으로 창단한 AI페퍼스는 같은 해 10월 19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염주종합체육관)에서 첫 경기를 치렀다. 광주 연고 계약은 5년이다.

이슬비기자

샌디에이고, 예비 FA 오타니 영입 총력...다저스도 경쟁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2023년 후 오타니 쇼헤이를 잡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17일(한국시간) FA 및 트레이드에 관한 기사에서 샌디에이고가 오타니 영입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매체는 “샌디에이고가 오타니 영입을 진심으로 노리고 있다. LA 다저스의 영입설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USA 투데이’는 “다저스는 오타니가

FA 시장에 나오면 영입전에 뛰어든 것이다. 샌디에이고는 다저스와 오타니 영입 경쟁 상대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타니는 메이저리그에서 전무후무한 선수다.

2018년 투타 겸업으로 돌풍을 일으킨 오타니는 2021년 기량이 만개했다. 선발투수로 23경기에 등판해 9승 2패 평균자책점 3.18의 성적을 올렸다. 그해 46홈런 100타점을 올리며 거포 본능마저 과시, 아메리칸리그 MVP를 수상했다.

오타니는 지난해 28경기에 등판해 15승 9패

평균자책점 2.33을 기록했고, 타율 0.273에 34홈런 95타점 90득점으로 맹위를 떨쳤다. 오타니는 애런 저지에 밀려 2년 연속 MVP 수상에 실패했지만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구단 입장에서는 오타니만 영입하면 중심타자급 선수와 에이스급 투수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오타니가 FA 시장에 나올 경우 메이저리그 최초 5억 달러(한화 약 6205억원) 이상의 초대형 계약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뉴스